

시니어 순모임(10월)

인도: 순장
대표기도: 말은이

찬 양 _____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_____ 다같이

대표기도 _____ 말은이

감사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한 달동안 하나씩해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기도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말씀 나누기 _____ 말은이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1. 새해기년도에 시작되는 순모임을 통해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 작품전시회에 많은 시니어의 참여로 교회 설립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광 고 _____ 말은이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교회설립 50주년 기념 시니어작품 전시회: 2023년 11월 5일(주일) ~ 11월 19일(주일)
접수: 9월 24일(주일) ~ 10월 8일(주일), 교회 로비
3. Fall Family Festival: 10/31() 5:30pm 화 - 8:30pm, 손주와 함께 오세요.

(통일 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

인도와 보호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E. E. Hewitt, 1898

주의 음레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 119:54)

보통으로

SINGING I GO: 8.6.8.6.REF.
W. J. Kirkpatrick(1838-1921)

1. 주 안에 있 는 나 에게 판 근 심 있 으 라
2. 그 두 려움 이 변 하여 내 기 도 되 었 고
3. 내 주 는 자 비 하 셔서 늘 함 계 계 시 고
4. 내 주 와 맺 은 언 약 은 영 불 변 하 시 니

십 자 가 밀 에 나 아 가 내 짐 을 풀 었 네
전 날 의 한 숨 변 하여 내 노 래 되 었 네
내 궁 핏 함 을 아 시 고 늘 채 워 주 시 네
그 나 라 가 기 까 지 는 늘 보 호 하 시 네

후렴

주님을 찬 송 하 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 고 험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리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1-8절

요한복음 15장은 열매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화의 단계를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기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어야 할 부분이 많은 나를 최고의 농부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품 인생이 탄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다가 천국 백성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Great commission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나서면서 제자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둘째,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4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 갈 수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습니다. **“붙어 있다”** 는 말은 헬라어로 **“안에**

집을 짓고 산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붙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시작도비니다. ,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천국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속에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지가 맞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종교인은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오늘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물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 때”** 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또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가지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최상의 열매를 위해 오늘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 (요한복음 15:16절)